



올 상반기중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크게 감소

전체 선박사고는 382척으로 전년동기비 4척 줄어

올 상반기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객선, 유조선 등 대형 선박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원장 최장현) 최근 발표한 '2006년도 상반기 해양사고 발생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선박사고는 382척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척 줄었다. 인명피해는 11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52명 보다 2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 인명피해를 보면, △충돌 53명(47.7%) △전복 20명(18.0%) △좌초 7명(6.3%) △접촉 6명(5.4%) △침몰 5명(4.5%) △화재폭발 3명(2.7%) △기타 17명(15.3%)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망 및 실종이 79명, 부상이 3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31.3%,

13.5% 감소했다.

올해 들어 이같이 인명피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인명 피해를 수반한 중대해양사고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선종별 사고척수를 보면 △어선 245척(64.1%) △화물선 56척(14.7%) △예·부선 43척(11.3%) △유조선 20척(5.2%) △여객선 10척(2.6%) △기타 8척(2.1%) 등 총 382척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선박사고 중 여객선(10척), 유조선(20척), 화물선(56척) 등 1,000톤 이상의 중대형 선박사고가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233%, 150%, 40%로 큰 폭으로 증가해 자칫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조선 사고 20척 가운데 17척이 자칫 대형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 좌초사고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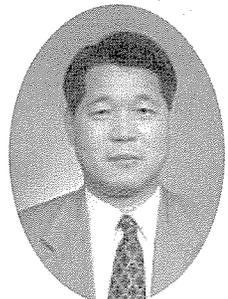
해양수산부 차관에 이은 전 중앙해심원장 선임

노무현 대통령은 8월8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이은(李垠)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내정했다.

신임 이 차관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등항해사로 근무하다 79년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선박 안전분야 및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시절에는 당시 해양부장관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율관리어업을 건의해 자원관리형 어업정책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된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의 취임식이 8월9일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부 본부 계동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임 이은 해양부 차관은 "그간 공직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은 신임 해양부 차관